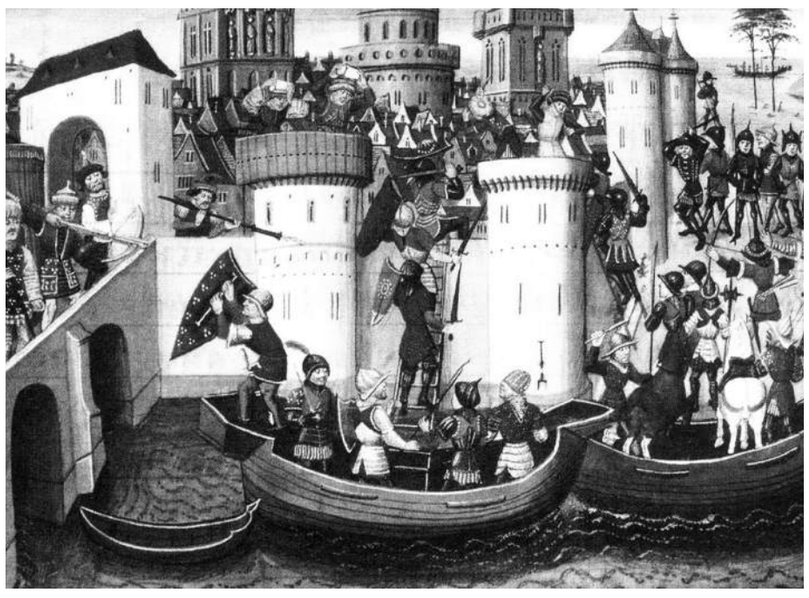
신화에서 대도시까지…다원화 시대 세계사 읽기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세계사

표학렬 지음



▶ 십자군 전쟁은 중세 유럽의 자기 부정이었고 그 결과 근대 유럽으로 가는 계기가 됐다. 십자군전쟁에서 약탈당하는 콘스탄티노플.

사실 오늘의 민주주의는 민족국가에 기반하고 있다. 21세기 다원화 시대에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스웨덴의 이민 규제, 프랑스의 이슬람 차별, 미국의 흑백 문제가 그렇다. 새로운 민주주의, 일테면 절차와 다수결을 넘어선 민주주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이유다.

향후 세계는 다원화에 기반한 민주주의 대안을 만들어낸 나라가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1인 1표가 아닌 1족(族) 1표, 중앙집권적 단일정부보다 지방분권적 자치 공동체,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나라가 주도 국가가 될 거라는 얘기다.

다원화 시대 가치의 충돌을 해결하고 공존하기 위해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변해야 한다. 세계사의 이면을 읽고 그것에서 방안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발간된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세계사'는 9개 테마로 읽는 인류 문명의 역사다. 신화와 종교, 정치, 전쟁, 이슬람, 일본, 이상주의자, 여성 지도자, 대도시 등 9개 테마로 세계사를 읽어낸다.

저자 표학렬은 그동안 '카페에서 읽는 조선사', '한 컷 한국 현대사', '하룻밤에 읽는 조선사' 등 함께 생각하고 풀어가는 역사를 지향해왔다.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고민했다.

저자는 먼저 각 민족의 대표 신화를 소개한다. 민족 형성기의 역사를 반영하는 분야가 바로 신화다. 저자에 따르면 그리스 신화와 북유럽 신화가 각기 영화 '스타워즈'와 '반지의 제왕'의 기본 서사 구조를 이룬다. '성경'이 영화 '어벤져스'의 기본 스토리를 형성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저자는 그리스 신화와 북유럽 신화, 티베트 신화, 아메리카 신화를 모티브로 오늘의 문명과 문화의 기원을 찾는다.

역사상 종교는 늘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오늘날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치인들은 종교를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물론 정치와 종교 관련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론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신탁이 없었다면 그리스는 페르시아에 멸망했을" 수도 있으며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영국의 무적함대도 없었을" 수도 있다.

전쟁과 역사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다. 누구나 평화를 외치지만 역사는 폭력에 의해 재편됐다. 전쟁은 파괴와 절망 속에서도 인류 변화의 계기를 주었다. 한마디로 전쟁은 명백한 모순의 속성을 지녔다. 작금의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국제사회의 이슈가 됐다. 그러나 저자는 이슬람은 중세시대 가장 발달된 남녀 관계를 이루었다고 본다.

이밖에 책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도시들, 페미니즘의 시대와 관련된 여성사, 이상주의자로 대변되는 마르크스 등도 소개돼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민주주의 모델을 역사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스만투르크의 밀레트 제도를 꼽는다. 다양한 민족과 신앙의 공존을 위해 시행한 '민족과 신앙 자치 공동체 제도'가 그것. 오스만투르크가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가장 강한 동력이었다. 밀레트는 권력을 잡은 민족, 다수 신앙도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다양한 민족과 신앙을 보듬은 공존의 제도였다.

〈인물과사상사·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른두살 나이를 초월한 두 친구의 특별한 우정

마지막 왈츠

황광수·정여울 지음

44년생 완도 출신 문학평론가 황광수와 76년생 서울 출신 작가 정여울은 나이 차를 넘어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됐다. 함께 책을 읽고, 문학에 대해 토론하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절친'인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2021년 9월29일 암으로 투병중이던 황 평론가가 세상을 떠나며 일단 멈췄다.

하지만 두 사람의 특별한 우정이야기는 책으로 묶여 나왔고, 그들의 만남은 다시 이어졌다.

황광수, 정여울이 함께 쓴 '마지막 왈츠'가 나왔다.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던 친구의 온기로 지친 하루를 버텨냈던 정 작가는 그와 나눈 수많은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 이 책을 기획했다.

황 평론가가 투병중일 당시 정 작가는 그의 원고를 정리하며 글을 다듬고 편집을 마무리하던 중이었다. 갑작스런 부음으로 충격과 슬픔에 빠졌던 정 작가는 친구가 남긴 미완의 글과 메모를 수습해 '마지막 왈츠'를 새롭게 구성했다. 생전에 이 책을 마무리해 절친에게 힘이 되고팠던 작가는 그간 모은 원고에 '황광수 선생님을 떠나보내며'라는 글을 새로 더 써서 책을 마무리했다.

문학청년 황광수는 평론이라는 것이 결코 딱딱하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글쓰기와 강연을 평생 해왔다.

책은 '선생님', '여울아'로 시작되는 긴 편지 9통과 인터뷰, 그리고 황 평론가의 에세이로 구성돼 있다. 인터뷰는 계간 '민주' 2013년 가을호에 실린 글을 수정하고 다듬었으며 그간 틈틈이 메모해둔 황 평론가의 에세이를 추려 40편으로 엮었다. 특히 에세이는 시적인 울림이 있는 아름다운 아포리즘으로 가득해 평소 시의 형식으로 에세이를 쓰고 싶다는 고인의 뜻을 존중, 원문 그대로 편집했다.

두 사람은 플라톤의 '향연'처럼 밤새도록 지속되는 아름다운 우정의 대화를 꿈꿨다. 사랑하는 스승 소크라테스와 함께 밤새도록 수다 떨듯 철학과 인생, 사랑을 이야기하던 당대의 그리스 사람들처럼.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다. 황 평론가가 전립선암 판정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친 큰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두 사람은 새로운 형태의 향연을 고안해냈다. 편지의 형식을 빌려 향연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할 수 없지만 따로 또 같이,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향연을 이끌어갔다. 그리고 향연의 중심에는 언제나 문학이 있었다.

책의 편집을 맡은 이승원 작가의 글 '통방울눈의 사내들이 떠난 유럽 여행'에서는 황 평론가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다. 〈크레타·1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우리가 수학을 사랑한 이유=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차별과 편견에 맞서 수학의 역사에 자신만의 성취를 남긴 여성 수학자 29명의 이야기를 모았다. 고대 그리스의 여성 수학자 테아노와 히파티아부터 마리 소피 제르맹, 에이다 러브레이스 등을 비롯해 영수합 서씨, 홍임식 등 지금껏 비교적 조명받지 못했던 한국 수학자들까지 소개한다. 〈지상의책·1만6500원〉

▲죄인이 기도할 때=사회의 시선과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약자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대한 복수를 다룬 추리소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가해자 류지는 사람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다. 저자 고바야시 유카는 삐에로 '페니'를 통해 가해자에게는 죄의 무게를, 피해자에게는 복수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소미미디어·1만3800원〉

▲사소하지만 강력한 말의 기술=지난 40여 년간 실용적이고 대중적인 심리학을 주제로 300여 권의 책을 쓴 사회심리학자 시부야 쇼조의 화술 매뉴얼. 회의, 협상, 발표의 기술은 물론 첫인상, 말버릇, 말실수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연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예시들을 통해 절대 손해 보지 않는 말의 기술을 전한다.

〈나무생각·1만4800원〉

▲2022 한국경제 대전망=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와 경제추격연구소가 매년 발행하는 이 책은 경제학부 이근 교수 등 모두 26명의 경제전문가가 분야별·산업별 국내외 이슈를 통해 2022년 경제를 조망한다. 저자들은 정부가 개인·기업·지역의 역량을 높이고, 국내 산업이 몰락해 국가의 복지 부담으로 귀결되기 전에 개입하는 역량증진형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1세기북스·1만8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부끄러워도 괜찮아=모든요일그림책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창작 그림책. 부끄러움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장기 자랑을 못 하겠다며 울음을 터뜨린 사자, 그런 사자를 위해 거북이와 박쥐와 늑대가 머리를 맞댄다. 부끄러움 많은 사자는 장기 자랑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저자 황선화는 사자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모든 부끄럼쟁이에게 용기와 응원을 전한다.

〈모든요일그림책·1만3000원〉

▲기후 변화 이야기=기후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45억 년 전 지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자 캐서린 바는 과도하게 에너지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구가 점점 망가지고 있다고 전한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친환경 주택을 짓고, 자전거를 타고,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등 자연을 더럽히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노란돼지·1만5000원〉

▲엄마의 결혼식=엄마의 재혼, 친부에 대한 그리움, 새 가족이 만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이의 정서를 섬세하게 담아낸 성장 동화이다. 다온이는 자기 자식들은 신경도 안 쓰면서 남의 아들 시합 일정까지 아는 엄마가 밉고 이혼했다는 아저씨는 문제가 있는 사람 같다. 저자 윤주성은 성장통을 겪는 아이의 심리를 그리면서 가족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룬다.

〈마음이음·1만2000원〉